

### 오금동주민의 호소

No.

사회각계의 시민 여러분  
 우리 없는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때 우리는 정말  
 어둠속에서 광경을 보듯 반가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금동 대부분이 노질, 행상, 파출부, 노동  
 등 그날 벌어서 그날을 살아야하는 영세민들입니다.  
 식월세도 다 까먹고 보증금이 한푼 안남은  
 사람들도 부지가수이며 가졌 재산도 해야  
 백만원이나 백오십만원 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초 재개발이 들어오기 전에는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살수있었던 6형짜리  
 집들이 갑자기 집값이 뛰면서부터 우리의  
 불행행은 시작되었던가 봅니다. 우리 세입자들이야  
 장차할 권리도 없다니까 그날 재개발사업이란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내집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  
 호화판 개선을 영세민층에 짓는다니? 우리  
 오금동 주민들이 그 아파트 관리비며 각종  
 시군을 들어가며 그곳에서 살수있는 사람이  
 가옥주라해도 몇명이나 될것인가  
 223? 올라가기 시작해서 1세대이: 2000여원을

223?

E-HWA

웃기잖아 복덕방이 아닌 부동산들이 판을 치기  
 시작해서 가옥주들은 장수집을 버리고 떠나  
 버렸으며 남부 가옥주들도 500만원씩  
 무이자로 용자를 주어 모두 몰아내 버렸읍니다  
 한번 너물린 가옥주들이 다시 오금동 주민으로  
 돌아올 수 있읍니까? 결국은 가옥주들은 우리  
 모두가 같은 삶의 단절을 경험할것처럼 판개쳐  
 버린 것입니다. 파들이한 집과 땅으로만 이루어  
 진 것 이실것입니다. 서로의 인정도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같은 생활권과 문화권을 가진 주민을  
 이렇지만 이제 가옥주들은 거의다 떠나고  
 데입자들만 남았읍니다. 도대체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란 말입니까?  
 정부는 눈감아주고 기업주는 도벌어 먹고  
 가옥주는 사랑한말 뜻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당장수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곳에는 임대업주권이 나왔는데 우리는 재개발  
 이라 왜 왜 안가야하는 애집입니다. 우리도  
 물집때때에 같은 재개발이 아십니까.  
 참으로 이렇게 없노자를 탄압하고 살 권리를  
 무자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정부의시책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이되고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HWA



## 8. 흑석동

## 1) 지역 개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판자촌으로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재개발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입자 40여세대는 몸으로 철거를 저지하면서 지역을 지켰다. 그러나 흑석동 주민들이 상계동 주민을 만나는 등 여타 철거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경찰과 동직원들이 주민대표들을 감시, 위협하였다.

## 2) 관련 자료

- 흑석 1동 조사 보고서.
- 우리동네 86년, 중앙일보, 1986.3.11.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등, 빈민투쟁소식 6호, 1986.11.

## 9. 상계5동 173번지

## 1) 지역 개요

상계5동 173번지 재개발지구는 60년대에 한남동, 청계천 등지에서 철거된 철거민들이 이주한 곳으로 전철4호선 준공으로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 85년 4월20일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 상계동 투쟁 시기 구분: 「상계 도시빈민 철거반대 투쟁 보고서」(1986.11.15/1986.12.1)에서는 이를 5기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아래는 그에 따른 시기별 특징이다.

① 제1기, 투쟁의 개시기(86.3-5월): 세대위 구성, 47시위를 비롯 운동의 전개 시작. 그러나 초기에 조직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용조직이 관과 추진위 등과 결탁하여 노골적인 폭력, 공갈, 협박 속에서 기만적 집단이주 강행.

② 제2기, 투쟁의 정비기(6월): 어용조직에 눌러있던 세대위 조직 재정비(어용조직의 포천 이주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주민 재조직). 이후 6.7시위, 6.18철거저지투쟁 등 상계 투쟁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 이에 쟁기를 박고자 6.26 폭력철거 자행.

③ 제3기, 가열되는 투쟁의 열기(6.26-8월): 6.26 이후 투쟁 고무. 투쟁의 대상, 재개발 책임자가 정부임을 인식. 이 시기에는 20여회에 달하는 시위, 농성 전개. 7.19명동 성고문대 회 상계 주민 200여명 참가. 이들 투쟁을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크게 알렸으며, 이에 따라 운동세력, 특히 학생운동 세력의 동조지원 시위가 많아짐.

④ 제4기, 연이은 구속사태(9월): 부구청장 연금 혐의 주민 17명 소환장 발송. 이에 북부서 항의 농성. 고대 단식 투쟁(구속자 석방, 재개발 중지,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학생운동 탄압중지, 아시안게임반대 등 요구)

⑤ 제5기, 잇달은 철거와 결사적 방어(10월-): 내부 분열 공작 노골화. 어용조직이 주민 폭행, 행패 자행. 한편 전경과 강패 수천명 동원 무자비한 폭력 철거 강행. 이에 결사적인 지역 방어 투쟁 전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타협적 운동 전개.

○ 상계 도시빈민의 주장: ① 빈민생존권 부정하는 재개발 철폐 ② 도시빈민 생활권 보장 ③ 구속자 석방 ④ 살인 철거 즉각 중단



2) 일지

1986년

- 3.21 : 상계5동 173번지 재개발 지역에 계고장 나옴.
- 3.25 : 상계동 세입자 대책위 결성.
- 3.28 : 동장면담. 정기반상회에 세입자도 참석시키라고 항의. 이때부터 관에서 개입 시작.
- 3.29 : 시청종합 민원실장 면담, 탄원서 제출(선대책 후철거의 내용)하였지만 해당부서가 아니라 책임회피.
- 4.7 :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400여명 시위.
- 4.8 : 동장면담 요청이 거부당하여 동사무소 앞에서 200여명 시위.
- 4.13 : 추진위원 측에서 세입자 간부진을 탈취하려 하였으며 간부진에게 강압적인 사임 압력.
- 4.17 : 세입자 총회 개최. 간부진 총사퇴를 강요했으며 사전에 계획된 어용 간부급 명단을 공개했으나 지지율이 5%에 그치자 이때부터 폭력으로 주민을 해산시킴. 이후 어용 세입자 간부들의 무법천지가 됨.
- 4.25 : 전 간부급들이 "173번지 세입자 친목회"를 발기.
- 4.3 : 어용단체 사무실에서 폭행사건. 친목회 간부와 대책위간에 의견 충돌을 일으켜 친목회 임원인 권순건씨와 김진홍씨가 구타당함.
- 5.13 : 가옥철거 시작, 대책위에서 빈가옥 철거하자 어용단체 간부급들 현장에서 동조함.
- 5.16 : 남성열씨 사망.
- 5.28 : 살고 있는 집을 반파하여 잠을 못자는 수십가구가 추진위에 물려가 집중 항의.
- 5.30 : 어용단체에서 추진위의 사주를 받고 포천 산간오지의 양계장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함.
- 6.1 : 전 간부진은 다시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입자 단합 총회를 개최함(회장단 선출, 결의문 채택).
  - 우리의 주장
    - 대책없는 강제철거 즉각 중지하라.
    - 당국은 우리 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 박탈하지 말라.
    - 우리의 보급자리를 보장하라.
    - 당국은 정당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우리는 굳게 뭉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투쟁한다.
- 6.7 : 세입자 100여명 도봉구청에 탄원서 제출 및 구청장 면담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도시정비국

- 장, 주택과장과 회담함.
- 6.12 : 추진위에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동장, 파출소장, 담당형사, 세입자 대표 4인과 회담하다 세입자 측과 단교 선언함.
- 6.14 : 김수환 추기경 상계동 철거현장 순시.
- 6.17 : 구청직원과 추진위 직원이 공동으로 상수도 폐쇄. 세입자 한 명 고발당하고 파출소로 연행되어 주민 70여명 파출소에 항의.
- 6.18 : 강제철거 강행되고 부녀자 70여명 몸으로 막으며 농성.
- 6.22 :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배포하다 경찰에 제지당함.
- 6.25 : 태능서 정보과 직원들이 나와 호구조사를 하면서 포천 양계장으로 이주 권장, 공포감을 조성하며 협박.
- 6.26 : 가옥주 천여명, 깡패, 건달 500여명, 경찰 500여명, 사복형사 100여명 동원하여 빈집과 사는 집 무차별로 파괴하고 사람이 있어도 예고없이, 아기가 있으면 밖에 던지면서 파괴작업을 전개하였다. 피해상황은 사망 1명(이치호씨), 중상 1명, 경상 40여명, 가재도구(1,000여만원), 치료비 45만원 등임. 이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60여명을 강제연행하고 철거가 끝난뒤 귀가시킴.
- 6.27 : 6.26 강제철거 사건으로 도봉구청에서 5시간 동안 시위함. 구청장과의 면담은 1분이었는데, 그는 "자체개발이니 관이 개입할 수 없다", "피해보상은 법으로 해결하라", "김상호추진위원장에게 종용해 보겠다"고만 함.
- 7.1 : 추진위, 강제철거 내용의 벽보 게시, 세대위 명의의 성명서 발표.
- 7.3 : 아침부터 전경 300여명, 깡패 100명, 포크레인 3대로 강제철거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수포로 돌아감.
- 7.7 : 세입자 사무실에 식칼을 든 깡패가 고의로 시비를 걸고 행패부리다가 주민들에게 쫓겨난 후 고소, 15만원에 합의.
- 7.10 : 주민 100여명, 지역에서 가두 시위. 전경 300여명 출동, 부상자 5명 발생.
- 7.11 : 주민 10여명이 6.26철거시 피해 보상 요구차 추진위에 갔다가 추진위원 김귀수 외 십수명에게 집단 폭행당함. 특히 하화정 총무는 뇌수술까지 받게 되었음. 세대위에서 김귀수를 고소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방관함.
- 7.14 : 외대생 7명, 상계역 앞 가옥 옥상에서 1시간 시위. 1명 구속.
- 7.19 :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고문 폭로 대회에 200여명 참여. 이관종씨가 최루탄에 대퇴부를 직격으로 맞고 병원에 입원. 황길구 회장, 김진홍 부회장 등 5명 경찰에 연행.
- 8.9 :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고발문' 배포.
- 8.14 : 아침 일찍 신민당사 들어가 고문-용공조작 폭로대회에 참석
- 8.15 : 성동서 앞에서 전날 하왕십리 대회 발언으로 연행된 제정구씨 석방 요구하며 시위. 경찰의



- 무차별 탄압으로 주민3명 부상, 1세 여아 기절.
- .8.17 : 명동성당에서 제정구 석방, 재개발 철폐를 요구하며 가두 시위 시도.
- .8.29 : 구청 철거반이 6.26 철거로 노천 천막 생활하는 가구의 천막을 훔쳐감.
- .8.30 : 주민 120여명이 천막 탈취사건을 항의하러 도봉구청에 가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 그러나 전경들이 폭력으로 제지하였고, 구청장은 후문으로 달아남. 이에 주민들은 구청 마당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면담을 요구하여 부구청장을 면담한 후 천막을 받아 귀가. 그러나 구청은 후에 주민 17명을 고소함.
- .9.4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철거민 기도회 참석후 가두 시위를 나섰으나 전경과 충돌, 나중옥 씨가 머리에 부상을 당함.
- .9.5 : 구청의 왜곡 고발을 폭로하는 유인물 제작 배포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 .9.6 : 주민 100여명이 주민 17명에게 소환장 보낸 북부서를 항의 방문하면서 서장과의 면담 요구.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경, 형사들에게 집단 구타당하고, 67명이 정보과, 형사과 보호실에 감금. 황길구 회장, 김진홍 부회장, 정경애씨 등 3명이 구속되었으며, 안은정씨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됨.
- .9.7 : 북부서 앞에서 구속자 석방 요구 농성.
- .9.8 : 북부서 앞에서 주민 농성.
- .9.26 : 고대 학생총회에서 재개발 정책의 부당함을 강연하고 귀가하던 유경재 총무가 경찰에 연행, 구속.
- .9.29 : 유경재총무 석방을 요구하며 주민과 손인숙 수녀 등 8명이 고려대에서 6일간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상계지역에서도 동조 단식투쟁 벌임. 고려대에서 단식을 하던 주민들은 단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연행되어 이판종씨 구속됨.
- .10.9 : 상계동 지역 주민의 분열을 노린 공작이 일어나 김유철, 박인태 등이 낮을 마구 휘두르며 천막 사무실을 찢는 등 행패 부림.
- .10.10 : 천막에서 각 민주화 단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계 철거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0.12-13 : 강제폭력 철거 실시. 철거반원 600여명, 전경 5개 중대, 포크레인 3대로 강제철거 시작. 이날 철거로 인해 대부분의 빈집이 모두 철거되고 주민 다수가 부상.
- .10.24 : 전경 300여명과 동직원 100여명이 사무실 천막 강제 탈취. 주민들은 이후에 가마니를 깔고 비닐을 치고 사무실 자리를 계속 지킴.
- .10.22 : 어용 세입자 7명이 세입자 대표 한순영씨를 대화하자고 불러 내어 구타함.
- .10.29 : 또다시 천막을 빼앗는다는 소식에 주민은 동네에서 가두 시위로 항의. 두명 연행당함.
- .10.30 : 새벽 1시 30분 갑자기 단전을 시키고 깡패 20여명이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비닐집'을 칼로 찢고 돌아감. 이후 추진위사무실에 깡패 100여명 상주.

- .11.2 : 추진위에서 11월3일까지 천막 자진철거, 정일우신부 추방 등의 벽보를 붙이고 이에 불응시 강제철거할 것이라고, 엄포.
- .11.4 : 강제폭력철거. 2천여 깡패와 천여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폭력 철거.
- .11.6 : 또다시 철거가 들어왔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수포로 돌아감.
- .11.19 : 재개발 사무실 기공식을 명분으로 천여명의 가옥주와 천여명의 깡패, 그리고 5백여명의 전경들이 폭력 철거 시도. 그러나 상계철거민들은 이를 저지하고 포크레인을 점령함. 이 과정에서 깡패 2명이 포크레인에 맞아서 1명 즉사하고, 1명 중상 입음.
- .11.29 : 신민당 '직선제 추진 서울대회'에 주민 30여명 동참하고, 이 틈을 타서 철거가 강행되었으나 저지됨.
- .11.30 : 아침부터 철거가 자행됨. 가장 치열했던 철거투쟁으로 주민 30여명이 다쳤지만, 철거를 격퇴함.

## 3) 관련 자료

- 상계4-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 1986.2.22.
- 서울시 도봉구 상계5동 173번지 세입자 주민일동, 탄원서, 1986.3.
- 상계4-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 1986.
- 상계동 173번지 재개발지구 (세)세입자 대책위원회 일동, 호소문, 1986.6.
- 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상계동 173번지) 공동조사위원회, 상계동 173번지 재개발 대책 보고서, 1986.6.
- 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 공동조사위원회, 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상계동 173번지) 공동조사위원회 보고서, 1986.7.5.
- 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 공동조사위원회, 천주교-개신교 재개발지역(상계동 173번지) 공동조사위원회 보고서, 1986.7.15(상동).
- 천주교, 개신교 재개발지역 공동조사위원회, 도봉구 상계5동 173번지 재개발지역 조사보고서, 1986.7.16.
- 오태순, 천주교 재개발 조사위원회, 1986.7.18.
- 상계동에서의 미사, 1986.10.24.
- 세입자 대책위원회, 상계 도시빈민 생존권 투쟁 보고서, 1986.11.15.



- 세입자 대책위원회, 상계 도시빈민 철거반대 투쟁 보고서(증보판), 1986.12.1.
- 김진훈, 「비자발적 주거이동에 의한 재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개신교-천주교 철거 공동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1987.
- 은수동, 상계동 마들평 철거 주민, 1987.
- 상계 4-1 구역 재개발 강제 철거민, 김수경 추기경 귀하 호소문, 1987.7.15.
- 윤석진,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상계동173번지 철거민의 이 아우성과 하소연”, 『열린사회』(제1권), 열린 책들, 1987.
- 마들평야 철거민, 회의록, 1987.7.23
- 김형국, 상계동 사태의 전망: 상계동 세입자에서 명동성당 천막민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도시빈민사목위원회, 1988. 6.22.
- 안은정, “철거민도 보통사람입니다.”, 『여성동아』, 1986.3월, pp.394-409.
- “르뽀 상계동 철거민”, 『신동아』, 1987. 5월, pp.448-467.
- 권순명, “명동성당의 기나긴 옛새”, 『샘이 깊은 물』, 1987.7월, pp.48-52.
- 김형국, “철거민의 토굴살이”, 『샘이 깊은 물』, 1988.4월, pp.13-40.
- “냉혹! 5공화국의 도시빈민정책”, 『월간경향』, 1988.6월, pp.122-139.
- 청년건축(제2집), “상계동 그 이후”, 1988.
- 세입자 대책위원회, 세입자 대책위원회 활동 일지, 1988
- 천주교도시빈민회, 지역실태보고서(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배밭), 1988.3.23.
- 천주교도시빈민회, 상계동 철거민 문제의 해결방안과 전망에 대해, 1988.3.30.
- 천주교도시빈민회, 상계동 철거민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해, 1988.5.11.
-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원회, 불량촌 재개발정책 이대로 좋은가, 1988.6.22.
- 고은태, 「부천시 고강동 집합주거지 계획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7.
- 박유미, 「상계동 철거반대투쟁 분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선종국, 「피해주민의 집단조직화와 정책과정과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도시빈민연구소, 「재개발과 철거투쟁」, 1991.1.

- 유인물 및 기타
- 상계동 173번지 살인강제철거를 온 국민께 고발한다, 1986.
- 도봉구 상계동 173번지 재개발지구 세입자 일동, 결의사항, 1986.6.1.
- 서울시 도봉구 상계5동 173번지 세입자 일동, 애국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1986.6.20.
- 천주교 도시 빈민 사목협의회, 최근의 상계동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6.6.28.
- 조합원 일동,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1986.7.3.
-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173번지 4-1재개발지구 세입자 일동, 애국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1986.7.5.
-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173번지 4-1재개발지구 세입자 일동, 재개발을 즉각 철폐하라!-상계동 폭력살인철거를 규탄한다-, 1986.
- 상계4-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 일동, 상계지역 주민께 드리는 공개문, 1986.8.9.
- 한국기독교 주민선교협의회, 주민신문, 1986.8.15.
-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173번지 세입자일동, 애국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상계5동 살인강제철거를 폭로한다-, 1986.9.2.
- 도봉구 상계5동 173번지 재개발4-1지구 세입자 일동, 거짓은 마음껏 춤춰 보아라!, 1986.9.7.
- 외대학보, 내일이면 우리집이 헐리어 진다, 1986.9.16.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상계동 지역 철거 주민과의 단식 투쟁에 부쳐..., 1986.9.30.
- 상계동 세입자 일동, 고려대에서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1986.9.30.
- 상계동 철거민 일동, 그때가 6.25 다음날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 1986.10.4.
- 상계동 철거민 일동, 통지서, 1986.12.13.
- 카톨릭 신문,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者의 편, 1987.1.11.
- 上溪철거민들 우울한 세밑, 조선일보, 1987.2.26.
- 상계동 173번지 도시빈민 세입자 일동, 도시빈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1987.3.11.
- 도시빈민 일동, 결의문-3백만 도시빈민 형제들이여!, 1987.3.11.
- 상계4-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 일동, 상계동173번지 재개발지역 1,500여 조합원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함, 1987.4.9.
- 상계동 173번지 세입자 일동, 우리 살림 살이를..., 1987.4.14.
- 서울 도시 빈민지역 재개발지구 연합위원회 일동, 성명서, 1987.4.14



- 상계동과 양평동에 강제철거에 즈음하여..., 1987.4.14.
- 개신교, 천주교 철거 공동 대책 위원회, 4.14 강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개신교, 천주교 철거 공동 대책 위원회를 창립하며-, 1987.4.15.
- 強制철거에 投石戰, 한국일보, 1987.4.15.
- 1년근 陣痛... 불씨남긴 『強制집행』, 한국일보, 1987.4.15.
- 도시再開發의 反省, 동아일보, 1987.4.15.
- 聖職者23명 참여 철거對策委 발족-上溪洞주민 요구代辯, 동아일보, 1987.4.15.
- 上溪철거 百여명 이틀째 철야농성, 중앙일보, 1987.4.16
- 上溪철거민 농성3일 昌信洞서도 시위, 동아일보, 1987.4.16
- 도시빈민司牧특별위원회 구성, 동아일보, 1987.4.16.
-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협의회, 도시빈민 호외2, 1987.4.16.
-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협의회, 도시빈민 호외3, 1987.4.17.
- 상계동 세입자들, 방을 “얼어 주었는데도” 왜 상계동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느냐?, 1987.4.24.
- 상계 철거민 일동, 상계 철거민의 피맺힌 절규!, 1987.
- 철거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일동, 은수동 단합대회를 맞이하며, 1987.7.5
- 성전 입구에서 머물던 상계동 173 철거민 일동, 교회 어른께 드리는 글, 1987.8.
- 서울산업대학신문, 거둬드는 철거의 악순환 우리의 보금자리는 어디에, 1988.4.4.
- 평화신문, ‘밀어부치기식 재개발’...없는 사람만 서럽다, 1988.4.10.
- 상계동 작은 보람회 일동, 명동을 떠나며, 1988.5.5.
- 상계공동체 일동-천주교 도시빈민회, 고 오동근 어린이 1주기를 지내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1988.5.5.
- 6.26 상계동 살인철거 규탄 및 주민결의대회, 1988.6.26.
- 상계동 철거민 일동, 상계 철거민 공동 결의문 -우리들은 하나되어 새롭게 일어설 것이다!, 1988.6.26.
- 고강동 상계철거민 일동, 민주시민 여러분!, 1988.6.26.
- 상계동 철거민 일동, 보금자리 쟁취를 위한 상계동 철거민 단합대회, 1988.8.14.
- 상계동 철거민, 6.26 상계동 살인철거 규탄 및 주민결의대회, 1988.

# 上溪洞철거민 抱川이주 3년째

## 가구당 방1칸 "닭장신세" 여전



○上溪洞 철거민 집단이주촌인 새터부락은 낮에는 모두가 밀려나가고 텅 빈다. 주민들은 이주 3년이 넘도록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있다. 【抱川-申鳳鳴기자】

89. 12. 8  
**축소개조주택 붕괴위협**  
**학교·시장등 생활기반도 全無**

【抱川=申鳳鳴기자】 상계동 철거민이 집단이주촌인 새터부락에서 3년째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 3년이 넘도록 가구당 방 1칸, 닭장신세 여전인 새터부락은 낮에는 모두가 밀려나가고 텅 빈다. 주민들은 이주 3년이 넘도록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抱川-申鳳鳴기자】

상계동 철거민이 집단이주촌인 새터부락에서 3년째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 3년이 넘도록 가구당 방 1칸, 닭장신세 여전인 새터부락은 낮에는 모두가 밀려나가고 텅 빈다. 주민들은 이주 3년이 넘도록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抱川-申鳳鳴기자】

상계동 철거민이 집단이주촌인 새터부락에서 3년째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 3년이 넘도록 가구당 방 1칸, 닭장신세 여전인 새터부락은 낮에는 모두가 밀려나가고 텅 빈다. 주민들은 이주 3년이 넘도록 "닭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抱川-申鳳鳴기자】



No

###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전상서

항상 국가의 발전과 주권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시는 대통령 각하의 가정에 하소인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글월을 올라온 저희들은 도봉구 상계동 상계전철 역앞에 (상계동 173번지)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현재 방1칸에 4.5명의 식구가 내집도 아닌 셋집에서 마지 못해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관이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클린 아시아 기념과 88년 올림픽 대사를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실 터인데 이글월을 올라가기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처한 입장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서 이 딱한 사정을 각하께 호소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1964년 서울시내 개발지역 관계로 20년전 철거되어 상계동 173번지 필지가로 이주 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20년 정도 살아 왔는데 겪은 수입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학교 교육비 등 항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내집 마련은 커녕 오히려 월세방으로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2X10 오늘날 세상에서 SHIN IL

No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만이 산다는 이기주의였다면 좀더 환경에 개선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들에 무능력과 불찰이 있었겠음니다만 이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처하고 불대 부모인 우리 당자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을 당해도 마땅하겠지만 이제들을 생각할때 이들은 세상에 부모 잘못 만나 정든 곳을 떠나야 하고 집없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는 것을 생각할때 못한 부모지만 엄밀히 정으로 마지막 대통령 각하께 호소하여 이들에 잠례에 희망을 안겨 줄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들은 으직 대통령 각하님의 말씀 하라디면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원체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허욕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가담치 않은 바깥은 하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능력 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한다는 자체는 우리 주인이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개발 추진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비우라고 하니 현재 전세 100만원과 식월세 50만원 짜리 가지고 살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방을 댄곳에 얻으려고 22X10

SHIN IL



No.

돌아다녀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가옥주들에게는 1인 1가구 뿐 아니라 집을  
 몇개씩 가지고 투기꾼들의 농간과 가옥주  
 자신들이 입주권 문제로 장사를 위한 것이며  
 이점 양갈 하셔서 규명하여 악덕 투기꾼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우리 세입자주민은  
 호소합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뜻이란 지역  
 사회에서 생활을 해결 할수 있는 지역에 집안  
 수용도 좋으며 야산이라도 세입자들에게 천막  
 이라도 처서 살수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 금치 못하며 우리  
 세입자들은 대통령 각하의 내외부의 뜻에 살수  
 있는 인간이 되겠으며 하늘의 총명한 축복을  
 내려 주시리라고 확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각하 영부인께서 또한 모든 가족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저희들의 딱한  
 호소를 물리는 바입니다

1986. 3

서울시 도봉구 상계5동 173 번지  
 세입자 주민 일동

22X10

SHIN IL

### 결 의 사 항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상계동 173 번지 세입자 일동은 생계의  
 보장이 없고 모든 생활여건의 허락하지 않는 악연 한시주대책은 절대  
 로 원하지 않으며 확고한 세입자 이주대책이 없는 개발 및 철거를 전  
 면 수정할것을 요구한다 우리세입자 일동은 대화로서 원만한 해결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의  
 와 폭력에도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주권을 찾을것을 굳게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 리 의 주 장

- 一.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즉각 중지하라
- 二. 양국은 우리영세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박탈하지 말라
- 三. 이곳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말라
- 四. 양국은 정당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수있도록 노력하라
- 五. 우리는 굳게봉치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결사투쟁한다

1986. 6. 1.

도봉구 상계동 173 번지 재개발지구

세 입 자 일 동

215



## 최근의 상계동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최우선적 선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는 도시빈민지역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러나는 복음의 빛을 따라 올바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왔었다.

그런데 최근 상계동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살인적인 철거사태는 재개발추진 과정에서의 온갖 파렴치한 행위와 철거강행의 비인간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당초 지역주민을 위한 20년 숙원사업을 내세우던 재개발사업은 우리의 우려대로 지역사회와 그지역 모든 이들의 인간성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가진자와 못가진자, 가옥주와 일부세입자는 이권에 눈이 먼 소수의 투기꾼들의 농간에 넘어가 이웃의 인정도,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몇푼의 돈이 가지는 유혹과 동원된 폭력배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다만, 비록 가진것은 없어도 양심을 굳게 지키며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함께 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기로 마음먹고 역경중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의식을 다져 투쟁해오던 세입자들이 있어 어둠 가운데 한줄기 희망을 주었다.

이들은 지난 4월7일, 6월7일 두차례에 걸친 시위로 '대책없는 강제철거 반대' '사람잡는 재개발 중지'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투기꾼, 가옥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측은 폭력배를 이용한 공갈, 협박으로 어용 세대위를 만들어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경기도 포천군 오지로의 집단이주안으로 불안심리에 가득한 세입자들을 회유,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전체 250여 세대의 세입자중 소수만이 응락할뿐, 한 청년이(문승렬씨, 31세)저들의 비인간적인 기만과 폭력에 분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등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그 허구성을 간파하고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철거대책소위를 구성하고 현지를 답사, 조사하여 올바른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도봉구청장 이름으로 대책없는 철거가 없도록 지시하겠다는 공문으로 세입자

들을 안심시킨뒤, 지난 6월26일 아침 불시에 수백명의 고용된 깡패와 가옥주들에게 술을 먹이고 백주대낮에 '오늘 하루는 마음놓고 까부쉬라'는 방송을 해대면서 처절하게 저항하는 우리 세입자들을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개며 철거를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할아버지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입원했고 두명의 부녀자는 실신할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하는등 상계동 전철역앞은 일대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경찰은 그 엄청난 폭력사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70여명의 세입자를 연행한 끝에 세명의 세입자를 폭행협박으로 구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어느 것이 사악한 불의의 세력으로서 우리가 이땅에서 그 뿌리까지 소멸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히 밝혀졌다.

이번 철거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패배했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세입자들은 그동안의 철거반대투쟁 가운데 가난하고 있는 이를 억압하는 군사독재와 독점자본의 온갖 모순을 깨치고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진정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싸움은 어차피 한번에 그칠 싸움이 아니며 하느님이 다스릴 정의와 평화의 그날까지 쉬임없이 전진하는 민중앞에 좌절과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천도빈 또한 민중과 함께 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항상 상계동 세입자들의 정의로운 싸움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상계동 세입자들의 고통은 이 시대의 참 인간이기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출애굽의 해방자이신 주여, 이제 여기 우리의 해방싸움에도 늘 함께하셔서 당신의 두 팔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1986. 6. 28

천주교 도시빈민 사무협의회

- ◎ 폭력사태 책임지고 현정부는 사죄하라!
- ◎ 살인철거 조장하는 투기정권 각성하라!
- ◎ 사람죽이는 재개발정책 즉각 중지하라!







### 우리 살림 살이를.....

1987년 4월 14일 아침 총인 4가지 끝날무렵 수많은 관원  
 철거장과 경찰 등 3500여명이 동원되어 세입자 80가구의  
 살림살이를 80대의 이삿짐 트럭에 싣고서 떠나려가려 했  
 다 해서 마련하여 소중한 내건 재산살이들이 경찰, 관원 광  
 패가 한패가 되어 배앗아가지도 우리는 힘이없어 댕을수가없이  
 한방은 가슴을 부딪쳐 안고 공무실치며 물다, 우리들의 자식들은  
 학교에서 조차 급우들 앞에서 너와는 왜 이사를 안가느냐 너희들은  
 대책을 세워줘도 무엇이 모자라서 그렇게 있는냐는 등의 선생의  
 관부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말을 지껄여 어린아이들 가슴에 조  
 차 못을박아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등교를 거부하며 지난한자의  
 장곳없는 실음과 또한 인간 존엄성이 상실된 이사위를 증오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위의 권력에 조그도 두려움이 없다, 이들은 바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것을만나 우리는 무장히 깃잡은 인간의 존엄성과  
 지난한자의 생존권이 보장될때 까지 이 투쟁을 다해 싸워 나갈것  
 이다. 배앗긴 것은 살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사위의 주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것이다.

1987. 4. 14.

상계동 113번지 세입자 일동

고오동근 어린이 1주기를 지내고,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작년 4.13호헌 조치 이후 어둡던 때, 상계전철역 앞 재개발지역에서  
 경찰, 철거반원 등 2800여명에 의해 쫓겨나 이곳 명동상당 안에 임시로 천막을  
 쳤습니다. 불안한 정력, 불편한 천막생활로 잠을 못이루던 즈음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학교를 마치고 전에 살던 동네 골목에서 놀던 상계세입자  
 오성국 씨의 차남 오동근어린이(당시 9세, 상계국고 2학년)등 4명이 무너져 내린  
 철거가옥의 담벽에 깔려 중상을 입고 이중 오동근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서울기독병원(면목동 소재)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을 장례일인 5월 6일 새벽 5시 25분 경찰병력 5개중대를 동원하여  
 탈취하고 화장시켜 버린 정부당국의 만행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5월 10일 서울시내  
 의 각 철거지역 주민들과 민주시민,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동근  
 어린이를 포함한 철거지역의 사망자 7인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치루었습니다.  
 위령제를 마치며 이 성당 앞 아스팔트 위에서 만장들과 위패들을 불사르며  
 우리는 진정으로 기원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내쫓거나 억누르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가난한 마음을  
 감싸안고 저 힘없는 자의 발톱을 꺾어버리는 날이 오기를 ...

그래서 우리는 그 뜨거웠던 6월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성당에 들려온 이들을  
 우리의 형제로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진정 깊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의 태풍과 겨울의 천막생활을 견디면서도 우리들은 또다른  
 삶의 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주교회 측의 중개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5천만원과 천주교회의 보조금 7천만원, 용자금 8천만원, 기탁 자체기금 등  
 총 2억 5천 5백 만원을 들여 우리는 경기도 부천시외곽 고강동 431-5일대 850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일찌기 좀더 구체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상계동  
 오지 배밭길 일대로 떠난 40여 세대의 형제들을 제외하고 지난 초겨울 신당동철거  
 지역에서 합류한 4세대를 포함하여 모두 39세대가 일단은 자신의 땅이 된 부천  
 고강동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겨울 1월 초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가건물장도는 별 문제없으리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당국은 철거반을 동원하여 우리가 세우던 가건물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 가건물은 우리가 명동에 있을 때, 자립의 의지를 다지며 근근히 모았던 1천만원 중 일부를 들여 지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참으로 우습고도 슬픈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시에서 지정한 정착지를 철거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해 4.14 강제철거 이후 도봉구청당국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살림조차 고강동 우리 땅에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에 이사짐을 싣고 도봉구에서 부천까지 하루밤에 두번을 왕복한 뒤에 우리는 길가에 이사짐을 내려놓았고 부천시 당국은 그 짐을 우리 땅에 들여 놓지 못하게 감시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 겨울, 임시나마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땅굴을 파고 움막을 지어 지냈습니다. 부천시 당국은 이러한 탄압의 이유를 "정착지가 경인 고속도로변으로서 88올림픽 심화방송로에서 보이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상금 몇천만원을 바라고 싸워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국민보다 외국인의 눈을 더 무서워 하고, 민중의 생존보다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우는 지배자들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협상 결과 서울시로부터 5천만원의 추가 보상금이 있었지만 부천시 당국은 여전히 7천만원이나 소요되는 가건물을 지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산다고 할 때, 가구당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라는 꼴입니다.

그간 주민등록 이전조차 거부되어 전학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자녀들은 주말에야 부모를 만나는 가운데 명동성당 고구정 별관 뒤 임시천막에 기거하며 상계동으로 통학을 해 왔습니다. 오는 5월 7일 우리는 모두 부천으로 떠납니다. 그간 여러 불편한 사정을 무릅쓰고 도와주신 명동성당,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주신 신자 여러분, 그리고 내내 따뜻한 눈으로 힘을 주신 여러 민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현재에도 신림동, 등소문동, 전농동, 사당2동 등지에서의 강제철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동을 떠나도 이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분단된 이땅에서 모두가 하나되는 공동체의 그날까지 우리의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1988년 5월 5일  
상계공동체 일동  
천주교 도시빈민회

4.14 강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신교, 천주교 칠기 공동 대책 위원회를 장담하며 -

우리 신구교 성직자들은 감림리에서 활동하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감림리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미약한 힘이나마 도시빈민들의 삶과 고통에 동참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개발 정책으로 인한 강제철거가 도시빈민들의 삶의 자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보아왔으며 근본적으로 제개발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의 제개발 정책은 대다수의 가옥주들을 세입자로 전락시키고, 세입자들도 갈 곳이 없는 유랑민으로 만들어 주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감수특약확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투기꾼과 건설업체와 행정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개발은 무슨 명목도 내세우든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는 법 이전의 문제이며 미스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 상계동과 양명동 지역에서 무자비한 강제철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계동 제개발 조합에서는 지난 4월 9일자 조간신문을 통해 세입자 요구의 부당성과 제개발의 합리성 주장과 종고단체의 지원 중단을 촉구한다는 광고 성명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가진자들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개발 조합이 70-80%가 투기꾼으로 구성되어 심정적으로는 투기꾼 조합이나 다름없으며, 둘째로 세입자들에 대한 포천 동고미 이주대책이 최대한의 대책인양 선전하고 있으나 100여 세대의 이주민중 60여 세대가 오지에 이주한 사실을 후회하고 있으며, 셋째로 종고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한것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분명 반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개발 조합의 광고문은 호도된 여론 제만을 통해 상계동 세입자들을 고립시켜 강제철거를 감행하겠다는 공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는 책 입주일도 못되어 현실화 되었습니다. 4월 14일 오전 9시 상계동에서는 트럭 80대와 철거반원, 구청직원, 전경등 3,500여명이 동원되어 지역을 포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저지하고 삼삼이물 주민의 허락도 없이 입방적으로 트럭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제개발 조합측은 어터 군대에 미끼 얻어 놓은 생방(보조금 100만원에 월세 6-7만원)에 분산하여 짐을 부려 놓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분산시켜 세입자들이 동치 못하게 하고 철거를 용이하게 하자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 100만원에 월세 6-7만원 하는 집세를 현 상계동 주민들이 감당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오금동, 암사동등 7개 철거지역 주민들이 상계동 철거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들의 싸움과 고통에 동참한 것도 진정한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들은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강제철거의 와중에서 유육자씨, 김제만기, 김금자씨, 천영옥씨, 이경숙씨등이 철거반원과 구청직원 및 전경들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허리와 다리를 다친데 대해 우리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말이 막막하여 이는 저들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상계동에만 그치지 않고 양명동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연상하게 합니다. 4월 14일 14세대가 사는 양명동에 사복형사 500여명과 200여명의 전경들이 투입되어 지역을 완전히 포위한 채 소방차들 동원하여 천막과 사방에게 무자비하게 물을 뿌려 주민들의 저항을 불쌍한 채 아주머니 7명과 남자 3명을 연행하였습니다. 연행된 사방중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폭력의 극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명동 주민들을 모두 연행한 후 돌 하나 나무조각 하나 제자리에 두지 않고 폭풍우가 할퀴고 지나간 것처럼 양명동 지역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집도 비닐천막도 흔적없이 사라지고 엄마, 아파마져 보이며 앉자 모두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다가 비닐 천막을 덮고 잠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성직자들은 낮조차 들기 부끄러웠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듯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강제철거가 관두지 않아 다른 계층과 지역으로 확산되어 하루도 도시민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들의 동국과 비명이 갈수록 커지고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총장의 집단 연인을 임단하겠다는 협박과 국민의 어감을 무시하고 계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 직후에 이러한 철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당국이 이러한 강행국면을 이용하여 도시민민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적인 탄압을 감행하고 있다는 죄수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직자들은 지금까지 철거민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다는 점을 하나님과 이웃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만사저만과 같이 있으나 계신고, 천주교 철거 공동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도시민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최근의 사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도시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민족의 제국화 정책은 즉각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2. 7속된 양평동 주민 전염병사, 임종환씨를 비롯한 모든 연행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전경과 구청직원들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강행한 사실에 대한 책임과 책임자에 대한 은책조치를 촉구한다.
4. 당국은 주민들을 폭행하고 집단구타한 사실에 대해 공적책임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철거를 위해 민중 생존권에 대한 탄압을 입히는 독재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1987. 4. 15.

계신고, 천주교 철거 공동 대책 위원회

공동 대표: 채정구, 허빙심 목사

대책 위원: 장성용 목사, 김동환 목사, 추영호 신부, 정원기 신부

문대권 목사, 이규삼 목사, 남국현 신부, 양권식 신부

이혁학 목사, 전인환 목사, 남학현 신부, 윤종일 신부

권오성 목사, 김인주 목사, 정일우 신부, 손인숙 수녀

나래림 목사, 장용근 목사, 장우자 수녀, 양혜연 수녀

김백경 (무순)

도시민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지금까지 도시민민은 천대받고 짓밟히며, 후사 당하더라도 슬픔과 통한의 울분을 스스로 삼키며 사립의 가난한 자들에 가장 쓸 자리에서 도시민민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가난한 세업자의 위치에서 이것마저 수탈당하면 오갈데가 없다는 극의 절망에서 움츠렸던 목을 펴고 날바닥이 부르르도록 헤매며 살아왔던 것이 지금의 우리 민자국가지대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감을 후사하지 않고 질항지도 않았으며 배앗지도 않고 장외하고 형편절박하게 살아 왔다는 증언 이므로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마음의 태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승리 발전되면서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이 타협해 좋은 세상을 그나마 생명이 유지되도록 투쟁해 온 것이 우리 도시민민이라 주장하며 앞으로의 좌우를 설정하고 단결하여 투쟁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3백만 도시민민 형제들이여!  
도시민민이 어떻게 형성 되었습니까?  
현재 서울에만 200여 팔동네에 3백만명의 도시민민이 살고 있습니다.



No.

흔리 말하듯 우리가 게으르고 손을 일할때 돌고만 있어서  
그런가.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구조와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1960년도 이래 경제개발 계획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엄청난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농촌은 황폐되고 이농민이 발생하여 이농으로  
형성된 광범위한 노동 인구에 비하여 노동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임들은 구조적으로 반등이 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이농민은 도시빈민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시빈민은 사회보장 제도의 결여로 낮은 임금에  
맞는 빈민촌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불어닥친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살인죄 강제철거가 자행되면서 빈민들이  
살수있는 빈민촌 자체가 없어지고 떠나 할것없이 모두  
집을 잃게되어 살곳이 없어지게 되었단 것입니다.

3백만 도시빈민 형제들이여!

지금의 도시 재개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개발입니까?  
이것분명 건설업체, 투기꾼, 행정당국이 몸뚱이득을 보고  
추진하는 착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어느빈민촌을 재개발해도 그 개발  
이익은 업청나게 현재 그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환전 되지 않고 대부분은 행정당국에 일부는 건설업체, 투기꾼

E-HWA

No.

의 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합동재개발에서 시유지를 팔아 거대한  
이익을 얻어 건설된 아파트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  
되므로 재개발을 하여 이익본는 것은 누구이고 피해를 본  
것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하는것은 일이 파꾸르 된다는 것입니다.

의 땅은 우리나라인이 태어나서 흙다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의 땅에 묻혀야 할 국민의 땅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철거를 한다하여 이땅의 빈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빈민촌 역시 사라지는것이 아니므로 근본적  
원인이 해결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런으로 이들 건설업체, 투기꾼, 행정당국이 제시하는 이  
주 분상비, 집단아주 임대아파트, 입주권등 이런 분상책도 현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될수 없는것입니다.

단지 세입자들의 반대를 무릅하고 철거를 강행 하려는  
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으로 우리 도시빈민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개발 정책  
을 즉각 철폐하도록 행정당국에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 살인죄 강제철거를 즉각 중지하고 파손된 가옥을  
원상복구 할것.

2. 시유지역에 정착지를 마련하여 주고 집을 지을수

E-HWA



No.

있도록 자재를 지원할것.

3. 현재의 아와트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임대  
아와트를 우선 건설하여 무상으로 입주할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 추진자인 행정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3백만 도시빈민 형제들이여!

우리의 존재 관철과 정의로운 의지로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킬때 그 누구도 파괴할수 없을것이며 살인적 강제철거를  
추음으로 지지할때 우리의 승리 관철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1987. 3. 11

상계동 113번지 도시빈민 세입자 일동

E-HWA

### 명동을 떠나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들은 1년동안  
여기 명동성당에서 공동천막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당측의 배려와 여러 봉사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들 곁에  
항상 기도로서 염려해 주신 여러 신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1년동안 생활해 오면서 보고 배운게 많습니  
다 서로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는 그런 따뜻한 정과 사랑을  
그리고 여기서 데모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후탄 가스에 이리저리 피려다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왜 학생과  
전정들은 언제까지 싸워야 하고 학생은 얼마나 더 희생이 되어야 하나!  
하는 그런 슬픈 현실에 대해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  
다. 데모에 의해 성당입구가 전경들로 인해 출입이 금지되면 성당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배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때면 잠없는 설움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우리들 곁을 떠나야만 했던 등근이!  
더러이른 보호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어른들의 말씀들, 어린이 남은 하루  
앞두고 어린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이 고작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삶터를 철거장패라는 물리적 힘으로 짓밟는 것  
고작 복지국가 건설이던가요.

우리는 항상 우리같이 소외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혼분으로써 공부열심히 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상계동 작은 보람티 일동

1988. 5. 5





지난 8월 17일, 상계 도시빈민 형제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수천명의 철거강 폐와 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재개발 철거사업



지난 7월 중순 상계 도시빈민 형제들이 살인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지역에서 경찰과 맞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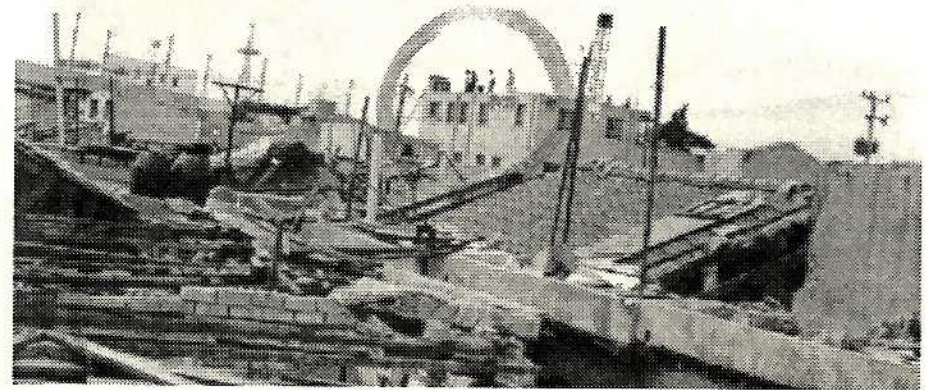


지난 8월 17일 명동성당 앞에서 상계동 등 도시빈민 형제들이 재정구 천도빈 회장 석방, 빈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자비하게 부수는 포크레인 횡포를 막아보려는 주민들 모습



○ 표안의 사진설명: "오늘 하루 마음 폭 놓고 때려 부셔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극렬 선동하는 추진 위원들 (고성능 스피카 동원) (상계 5동 · 동부의원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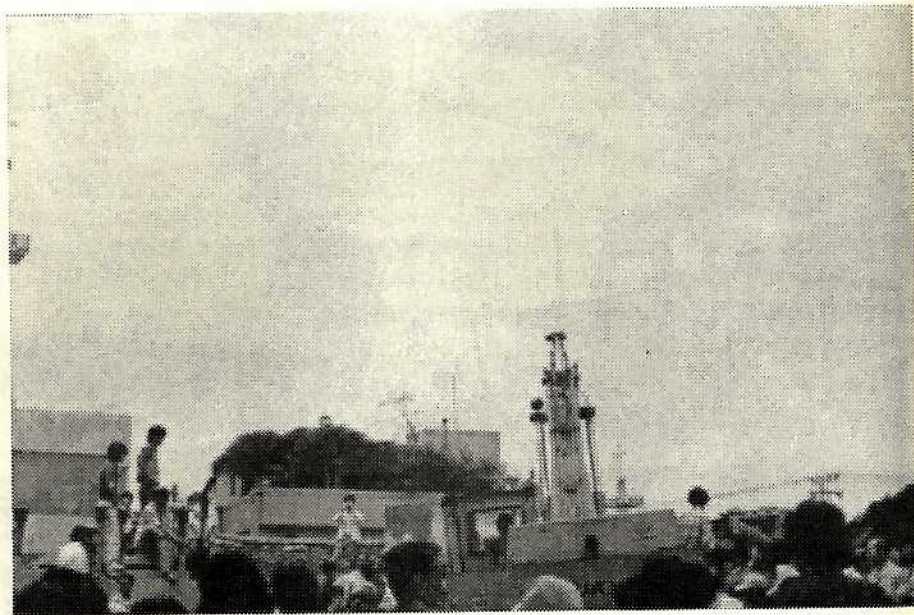
강패 · 불량배 등을 동원한 철거반원들의 무자비한 철거현장



제2부 철거민이 본 철거



주민들의 연좌 농성을 저지시킬려고 동원된 전경들



사정없이 부수는 포크레인



집을 쫓거나 거리에서 항의하는 주민들



무참히 부서진 가옥들



## 10. 양평동 3가 72번지

## 1) 지역 개요

양평동의 세입자들은 1986년 6월경에 가옥주로부터 철거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리하여 안양천 부근에 살고 있던 160가구 중 가옥주는 보상을 받고 자진 철거를 한 채 다 나가고 세입자들만 30여가구가 남아 싸웠다. 첫번째 철거는 86년 10월23일 경에 일어났다. 아침 9시30분경 영등포 경찰서장, 구청직원, 전경 20여명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철거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의 격렬한 제지로 철거반측은 철수하였다. 이때 싸움에 참여한 아주머니는 7-8명 정도였다. 2차철거는 11월17일경에 전경 약40여명 정도가 동원되어 실시되었다. 아주머니들이 격렬히 저지하였으나 전경들에 의해 연행당하여 동사무소에 감금되었다. 동네 화장실과 가옥 6채가 포크레인에 의해 부서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철거가 계속되자 주양현씨가 포크레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양현씨가 포크레인에 의해 부서진 돌덩이에 맞아 쓰러지자 포크레인 기사가 도망가고 상황은 종료하였다. 머리를 다친 주씨를 비롯하여 갓 백일이 지난 갓난아기가 구청직원에게 의해 발에 채이고 할머니가 폭행당했다. 3차철거는 11월21일경에 시작되었다. 이번 철거에서 철거민들은 몸싸움으로 는 도저히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경들과 철거반원들에게 처음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주양현씨가 야구방망이로 동네 입구를 휘젓고 젊은 사람들이 협조하여 철거를 저지할 수 있었다. 4차철거가 시작된 것은 11월29일이다. 아침 9시30분경부터 구청직원과 철거반원들이 동원되어 빈집을 철거하려 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였다. 철거반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한 천주교 도시빈민회원들이 오자 “12월초에 올테니까 그때는 마지막으로 알아라.”는 말을 남기고 철거반은 순순히 철수하였다. 총26세대중 한곳에 모여사는 14가구만 저항해 왔는데 협조를 안하던 나머지 10가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5차철거는 12월5일 아침 8시30분경에 들이닥쳤다. 구청직원들이 포크레인과 같이 들이닥치자 대비하고 있던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차단하고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시동키를 빼앗았다.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자 8시50분경 철거반원 50여명과 전경 30여명, 그리고 경찰간부와 구청직원이 몰려와 또다시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투석전에 일단 후퇴하였다. 동네입구로 밀려난 전경들과 철거반원들은 30

분후 다시 진입을 시도하였다. 주민들과 철거반원 사이에 격렬한 투석전이 전개되었고 어린아이, 할머니까지 돌을 던지는 격렬한 싸움으로 철거는 재차 유보되었다. 이후 소방차가 대기하고 전경이 30여명 증원되었다. 주민들은 입구에 나무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채 주민 2명이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을 준비하였다. 영등포 형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 타협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자 소방차 호스가 물을 뿜으며 전경들과 철거반원들이 다시 마을내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돌, 오물, 불붙은 솜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다시 철거반원들을 마을입구까지 쫓아내었다. 다시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며 공격하자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를 10여분간 차단하였다.

## 2) 관련 자료

- 양평동 지역 소개 및 투쟁 보고.
- 양평동철거반대투쟁위원회, 양평동 철거지역 현황.
-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협의회, 양평동 철거반대운동 일지, 1987.
- 양평동 철거반대 투쟁위원회, 양평동 철거지역 현황, 1987.
- 천주교 도시빈민 사목협의회, 1987년 7월14일 민주당 농성및 민정당 농성기도 사건 경위서, 1987.
- 김을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행림미디어, 1998.
- 유인물 및 기타
  - 서울 도시빈민지역 재개발지구 연합위원회 일동, 성명서 '1987.4.14 상계동과 양평동 강제철거에 즈음하여', 1987.4.14.
  - 양평동 3가 72번지 주민 일동, 1987년 4월14일 폭력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87.
  - 양평동 철거지역 도시빈민, 우리의 입장 '우리는 왜 민주당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1987.
  - 서울시철거민대책협의회, 왜 우리는 민주당사를 찾았나, 1987.7.15.
  - 고 이창욱 형제 양평동 철거민장, 1988.5.3.



1987년 4월 14일 주력 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향정응 3가 2번지 주민 일음)

지산밖 황량한 제리에서 추위에 쫓겨 장북 들렸은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  
비동향과 근초의 눈물을 삼키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어야 한다.

작성 12월 2일 거론한 사게 래달라노 애절은 필적지하에 무술라노 사  
강제 철거 저지 싸움 이후 - 우리 향정응 주민들은 "최이상 이렇게 참할수부  
없다" 라는 입장 이었다.

그러나 행정청주우 우리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험은 한번도  
모이지 않았으며 모리려 불법 압착, 구속을 받았으며 굶기 야는  
경찰의 강제로 단속시켜 시자이브, 들을 휘드르며 우리 형제들은  
주이려 했다,

우리는 사전 예고 없이 자행된 4/14 강제 철거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의  
정신 구타 불법 선행 되었던 사실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  
마치 전쟁을 치른 사람들처럼 가족은 뿔뿔히 흩어지고 심장병 환자는  
근초의 공포속에 울부짖는 사연것들은 이 잔인한 폭력 앞에서 울부짖어  
터트릴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족들의 생존과 처리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용감하게 밝히려 한다  
거음 화려한 비문용 사리를 맞으며 새우장을 잔 우리 여인것들끼게  
우리는 무모로서의 최선의 의무를 바쳐지 못한 처형장에 이를 악물고  
각각 환나 도한 성부 압구미 단속의 총의 한다

당신들은 피스 수틀도 없는 인간들인가? 당신들은 자식도 없는가?  
우리는 선연한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때 까지 관망 없이  
투쟁 할것이며 이는 양정응 철거민의 지맛히 함성입니다 ... ..

우리의 요구 사항.

1. 4/14 안행에 대해 정무는 공개 사과 하고, 책명자를 처벌하라.
2. 구속자 전권을 주장 상항하라.
3. 우리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완전한 대책을 수립하라.
4. 우리 집안을 풀어 내라.
5. 현재 자행되고 있는 무대행 철거 정책은 주장 철제 하라.

No.

우선 양정응 1가 19동 20동 21동 재개발 철거지역에
생신 앞길 세입자 많기다
가산 자사관 쪽 못하게 앞은 밑에 종살한데
장북 하북길 생신 앞길 가산전 70대 초반까지
20대 가사 힘은 장북동이 가동대로 살기에
생신길 생신, 후다가의 힘을 위해 살아간
있을거다
84년에도 인정간 사해로 앞은 재산파해로-
주말 있을거다
양정응 생신삼의 후화 생신길 안양권 쪽이
생신길 편한 7번 위장한, 무수 후부의 생신길
위장한, 사해 길 상해 있을거다.
7대 7 마수길 장북해 사가면서 이드심도
맞잡서 생신 할때 후사 7년만에
후사 84년도 후사 형식 다른 피해를 호게
위대 있을거다
재개발로 인하여 앞은 사후를 파기한다
장북가가 약정인도 인정간 사해로
호게 있을거다.
7대 양사 장북삼의 5월이 7년
동계 길 앞선 약제마 5월로 차가 7년
후부가 없을거다
자신 가지도 7년 거기에 7년



No.

사실인 철거민의 오해를 치우지 않아  
 무죄가 진동하는 위 해외결재 등 진여함을  
 유감할수 있는 조건의 중점입니다.  
 자반은 사안도 아뢰어선 진도 아집니다.  
 이차역 대외관 사안들은 신야후사 자수심가  
 관 사안들이 가외대도 자심일 이쪽신  
 자수 대외관 자반이란 결재를 쓰우지 않기도  
 진신은 다한단 자외 정입니다  
 이선 부재할 상할때마다 사결과 불의도  
 결외가 없게 제정함에 불외일 정입니다.  
 이번 부재에 불외적 원인은 잘못 사안게  
 불외 양에 비가 개인 정입니다.  
 또 사안 할수 가외를 제정신 가외변을  
 가외정 결외하지 않거나 자외가 정정신  
 양정 결외상의 무타 신상이 가장은 부재의  
 원인이상 무타는 무타의 부외적 무외 양정동  
 부외의 사안사 결외의 무외를 무외 해올나다  
 회신 무외의 잘못 무외가 무외를 정정하여  
 무외 사안들의 자외에 무외무정 미  
 정신 자외 결외 사외지 기 가외여  
~~무외 이차 대외 양정 결외 사안해 무외~~  
 무외 지외 대외의 무외일때까지  
 계속 무외 정정을 무외 정정한다  
 양정동 철거민에 무외정정 미정

謹弔

신도비문

故 이창옥 형제

양평동 철거민장



일시 : 1988년 5월 3일 9시 30분  
 장소 : 양평동 철거지역  
 장례위원장 : 김성규 양평동 철거 반대 투쟁위원장  
 : 강치원, 임승현.  
 2503 : 광석 서철협회장, 김혜경 천도반 회장.  
 도시빈민연 상록 기민협 회장, 양연수 노점연합 회장



# 故 이 창옥 상평동 철거민장

사회: 엄 승현

- 애국가 제창 ..... 모두 일어서서
- 묵념 ..... 故인의 명복을 기리며 !!! ..... 모두 함께
- 장례에 즈음하여 ..... 김 성급 위원장
- 노래 ..... "님을 위한 행진곡" ..... 다함께
- 故녀 소개 ..... 이 창옥 - 비민 형제에게 ..... 강 처원 부위원장
- 추도사 ..... 비민 재포 ..... 천도빈·기변환·신형철·노정영합
- 노래 ..... "루사의 노래" ..... 모두 함께

## 윤 구

### 당산 성당 장례 미사

장지; 벽제 공원묘지

故子 이 병덕

삼가 故녀의 명복을 빕니다.



\* 4월 14일 \*

김밥을 막 먹기 시작한 무렵 "올려온다!"라는 소리에 뛰어나왔다. 순식간에 전경 수백 명이 우리를 에워쌌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탱크가 굴러오는 듯하다.

소방차에선 호스로 마구 물을 내뿜었다. 이수리장.....

누군가가 고함을 지른다. "안 보이게 가라고 때려!" 쫓아지는 듯한 비명소리.....곳곳에서 우라 등대 사람들이 심하게 맞고 있는가 보다.

어느 새 사복경찰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내 몸을 전경차 안으로 쫓겨 버렸다. 뒤이어 유림이 엄마, 석현이 엄마, 미나 엄마, 중학생인 인배까지 10여 명.....이제 거의 다 실려나 보다.

석현이 엄마는 머리카락이 다 뽑혀 머리카락이 허당하게 보일 정도였다.

살아생전 처음 철창 속에 있게 되었다.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녁 8시 가라고 풀어 주었다.

동네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만 쫓겨가 되어 버린 벽돌더미 위에 앉아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누군가 한심한 처지를 하소연한다. 누군가 구청을 원망한다. 한 아줌마는 "똑같은 세금 내고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냐?"며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을 면다.

수녀님들이 김밥을 가져오셨다. 고맙다. 우리들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신다. 이제 아이들을 재워야겠다. 어떻게 재우냐? 이부자리를 텐트에 깔고 바나수를 위에 덮어 주었다. 오돌오돌 떨며 춥다고 한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모닥불을 피운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까지도 울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노래가 동시에 나온다. 목이 쉬어도 좋다. 밤새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다.

바람까지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밤이다. 누가 이토록 우리를 몰아세우는 건가?

\* 4월 15일 \*

아침 일찍부터 구청에서 나와 위에 섰었다. 비닐조각까지 다 가져가 버린다. 악마의 형상으로 비친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욕설이 심하다. 발길이 닿는 것은 그냥 차 버린다. 대체 우리랑 무슨 원수가 된 걸까?

오랜만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엘 다녀왔다. 아이들은 모두 폐렴 증상이라고 안정을 취하란다. 어디서...? 문선이가 갈비뼈에 금이 갔단다. 전경들 발길질에.....

병어리 아줌마도 발 뼈에 금이 가 기브스를 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모두가 건강하다면...

왜 겨울만 지나면 이사간다는 말을 안 들어 주는 걸까? 바보스러운 사람들이다.

이 모든 아픔을 그들은 알까? 내가 구청장을 뺏으면 싶다.

오늘 밤은 더욱 추워질 것 같다.

\* 4월 20일 \*

땅을 파고 위에 천막으로 대충 가렸다. 전부 45명. 반도 못 들어가 자겠다. 어른들은 또 맨날에서 지새운다. 불 지필 나무도 하나도 없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밤새 쏟아진다. 아이들은 놀라 소스라친다. 그래 더 싸부어라. 하늘의 눈물이 많은가, 내 눈물이 많은가, 어디 한번 해 보자.

아빠! 우리는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들이 죽으라는 이곳에서 이 거세게 몰아치는 빗속에서 환을 품으며 죽고 싶어요.

제발 오라고 하지 말아요.



\* 4월 21일 \*  
 비는 아침까지 그칠 줄을 모른다. 오  
 늘도 계속 오려나보다. 아이들이 아우  
 성이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진다. 쓰러  
 지면 안 되는데...  
 근처 여인숙을 찾았다. 아이들이 많다  
 고 밤을 안 주겠다고. 할 수 없지!  
 아이들과 명동성당으로 갔다.  
 무엇을 하고들 있는 것일까?

편하게 앉아 구걸을 원하는 건가? 가  
 슴이 아프다. 상계동 주민 전체와 양평  
 동 아빠들... 지금 여기는 우리들이 앉  
 아 있을 곳도 못 되는 곳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만들었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꺾박받아야 합니까?  
 시간, 가정, 화기에...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픔  
 이 더해 온다.  
 오늘날만큼 잠이 조금이라도 와야 하

는데.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또 그 땅으로 우  
 리 모두는 돌아가리. 그러곤 그곳에서  
 죽어가리.  
 현수막도 하나 써서 전봇대이라도 붙  
 들어 매야겠다.  
 "빈민 생존 외면하는 무대책 살인철  
 거 즉각 중단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우리들의 가정을 돌려 달라!"

###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도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謹

叩

## 11. 암사 2동

### 1) 지역 개요

위커킬 호텔 맞은편 강 건너에 위치한 암사2동 608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취락구조정  
 비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도시빈민을 보금자리에서 내쫓고, 투기꾼들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사실은 대다수의 가옥주가 투기꾼으로 대체되었다는  
 것과 1986년 10월17일의 강제철거로 인해서였다. 행정당국과 경찰당국을 등에 업은 투기꾼  
 들은 포크레인과 전경, 구청직원, 철거반원 500여명을 동원하여 세 방면에서 기습적으로 마  
 을로 진격하여 동시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주민 30여명은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  
 느냐, 김승만도 못한 놈들이! 가진자들만을 위한 이 세상,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  
 지다"며 강제철거에 맞서 싸웠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한 아주머니가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  
 가고 김재덕씨 부인이 충격을 받아 손발을 부르르 떨다가 실신하였다. 이러한 악몽과 같은  
 강제철거의 회오리를 겪은 주민들은 폐허 위에 천막을 치고 밀가루로 연명을 하면서도 "정  
 권의 속성을 안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가 지키자"며 결의를 불태웠다.

### 2) 관련 자료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외, 빈민투쟁소식 6호, 1986.11.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주민신문, 1987.9.30.



## 제7장 1987년-89년

### 1. 사당2동

#### 1) 지역 개요

사당 2동에 동네가 형성된 것은 60년대말 양동을 비롯한 사대문안의 철거지역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무상으로 땅을 불하해 준다는 말에 2백여 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해 오면서였다. 시유지 7만평, 사유지 2만평의 대지 위에 달동네 집들이 들어차기 시작하였는데, 1984년 5월 이 지역마저 재개발지역으로 공고가 났다.

#### 2) 일지

1987년

3월 : 자진 철거 시작.

8.16 : 세입자 대책위원회 결성(세입자 1차 총회).

.10 : 극동건설 이주비 지급 시작.

.12.27 : 임체의 어린이 철거잔재로 인한 사망.

1988년

.1.8 : 임체의 어린이 장례식.

.1.13 : 세입자 대책위원회 임시총회. 구청에 대한 항의방문,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 점거. 평민당사와 민정당사 방문.

.1.18 : 당시 세대위 총무 방창술 연행.

.1.19 :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방창술 석방.

.1.21 : 세입자 300여명 민정당 중앙당서 농성.

.1.31 : 사당 제2동 세입자 임대주택 쟁취대회.

2.10 : 재개발 조합의 철거 시도 물리침.

2.16 : 세입자들, 현장의 철거 사무소에 항의 행동.



- .3.3 : 사당2동 세입자 대동제.
- .3.7-9 : 재개발조합 사무실 농성.
- .4.21 : 명동성당에서 서울시철거민협의회와 함께 농성.
- .4.22 : 세입자들이 인근의 부동산 사무실에 항의행동.
- .5.5 :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항의행동.
- .5.14 : 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사당주민 단합대회.
- .6.14 : 동작구청 점거. 대책없는 사업승인 거부,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이익의 분배, 13-15평형 아파트 월 5만원 이하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저리 임대주택의 보장요구-대책의 범위를 88.5.19까지 주민등록 등재 가구로 확대시키도록 함.
- .6.28 : 국회앞 농성, 평민당 중앙당사 농성.
- .7.1-8.7 : 사업승인을 위한 열람기간.
- .7.10 : 재개발에 대한 세입자의 이의 신청.
- .7.15 : 구청점거 철야 농성.
- .7.29 : 조합 사무실에 항의.
- .8.1-2 : 철거반원과 충돌.
- .8.2 : 조합과 세입자들간의 협상(철거를 당분간 중단한다, 이사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가도록 한다).
- .11.1-4 : 지역주민 총회 결의후 임대주택보장 요구하며 동작구청 농성.
- .11.5 : 철거반원 800여명 지역에 들어왔지만 오후 10시경 주민 300여명이 강폐속소를 기습하여 텐트 전소시키고 강폐를 몰아냄.
- .11.6 : 술과 환각제 복용한 철거반원 1,000명 습격으로 지역주민 50여명 부상, 3명 중태, 그리고 철거반원들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
- .11.10 : 지역을 배회하던 철거반원 13명 붙잡음. 이들의 진술을 통해 사당동 만행이 공권력과 결탁한 폭력만행임이 밝혀짐.
- .11.11 : 사당동 세대위, 서충련, 도빈공투 공동 주축로 "사당2동 살인철거규탄 및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열림.
- .11.15 : 14일 주민총회의 결의로 동작구청 농성 시도. 주민 8명 연행.
- .11.16 : 주민, 학생 400여명 총신대 입구 역까지 진출. 이후 경찰에서 세대위 간부에 대한 검거령 내림.
- .11.18 : 경찰측이 학생들 철수를 요청하며 협상을 요구. 주민들 거부함.

1989년

- .3.15 : 방창술의 세대위가 재개발 조합과 천만원에 잠정적 합의. 주민들 이의 제기.
- .3.17 : 저녁 8시 주민총회 이전 옛 지도부와 새 지도부 언쟁. 학생 100여명 참여하여 충돌 방지의 역할을 담당.
- .3.22 : 오후 3시경 관악서 소속 경찰 30여명 지역 침탈. 저녁 8시 극동공구 주민 총회, 대표 선출.
- .3.23 : 우성 2공구 주민총회로 대표 선출.
- .3.24 : 방창술이 주민 황승환에게 폭력을 유발시켜 구속시킴.
- .3.25 : 당시 방위병이던 공태하씨가 부대에서 체포, 구속됨. 방창술 구속을 위한 서명운동 확산.
- .4.3 : 주민 정기총회에서 신집행부가 구집행부의 비리 폭로. 집행부 불신임 선언. 독자적인 총회 공고. 신집행부가 우세.
- .4.8 : 기존의 세대위를 불신임. 임대주택쟁취를 새 집행부의 노선으로 확정함. 새로운 세대위인 "민주 세대위" 결성.
- .4.11 : 방창술, 표창분이 세입자 지도부 합의서 날인. 분양권을 1,300만원에 조합이 매수하는 형식.
- .4.14 : 방창술이 동원한 강패 10여명 지역 침탈. 저녁에 비상총회 개최. 학생 100여명 결집.
- .4.17 : 방창술, 표창분, 최막점을 민주 세대위 위원장 임용길씨 등이 고소(폭력행위, 재물 손괴, 공금 횡령). 방창술에 의해 동원된 강패 50명 주민폭행. 주민 8명 부상.
- .5.15-16 : 폭력배 50여명 강제철거 및 민주세력 테러 시도. 그 과정에서 중앙대 학생이 강패의 칼에 찔려 자상 입음.
- .5.16 : 폭력배와 충돌.
- .5.17 : 새벽에 폭력방지 명분으로 경찰 천여명 지역 진입.
- .5.30 : 경찰의 공가철거. 전경과 백골단 2,000여명, 철거인부 500여명, 포크레인 8대가 동원되어 철거가 자행되자 주민들 이에 반발해 가두농성. 이 과정에서 주민 15명, 학생 32명 연행되고 유용일씨가 구속됨.
- .6.16 : 철거로 인한 가옥 붕괴 주민 부상.
- .6.20 : 이해영(당시 4살) 어린이 철거잔해에 의한 사고사.
- .6.28 : 이해영 어린이 장례식.
- .7.25 : 구청장, 전영국 극동대표, 임용길 세대위 위원장 등이 대담(수서의 임대아파트나 사당동에 24평형에 2가구씩 입주 요구). 구청, 조합, 세대위와의 3자회담 성사 요구.
- .8.9 : 공권력 2,500여명, 철거용역 500여명이 지역으로 들어와 철거 강행. 주민 100여명 철거현장 연좌 시위. 형사들 세대위 위원장 연행 기도. 주민들의 필사적 구출로 갈비뼈가 부러진 채 지역으로 피신.
- .8.10-11 : 공권력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강제철거 강행. 지역주민들 저지투쟁. 공권력이 천막마져 빼앗아 불태워 버림. 지역주민들 움막 건립하고 일부 주민은 동작동사무소 농성. 11일



오후 3시에 "사당동 강제철거 분쇄 투쟁 보고대회" 진행.

- 8.12 : 학생 10여명 선전전 전개. 지역 가옥이 완전히 철거됨. 철거반원들이 지역에 숙영지 확보하고 계속 상주. 주민 총회, 단결 투쟁 결의.
- 8.13 : 주민 130여명 민주당사 농성. 민주당 주선으로 구청과 대화하였지만 지역에서 무조건 나갈 것을 강요. 지역공사 강행됨. 천막은 허가되지 않았고, 비닐움막만은 일정기간 동안 철거 않기로 약속.
- 8.14 : 구청 측 약속 어기고 움막 철거 강행(기공식 빌미) 이후 계속 확산, 주민들이 움막철거 저지하자 철거반원들이 지역에서 집을 들어낸다고 협박.
- 8.16 : 학생 10여명 지역 방문단 구성하여 주민 총회에 참여.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드리는 글 배포하며 연대투쟁 결의.
- 8.19 : 학생과 주민 20여명 철거반 숙영지 기습하여 천막 일부가 전소함. 철거반원들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 도주하여 다수 부상. 이후 철거반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보복 테러를 가하여 주민 10여명 무차별 폭행당함. 이후 철거반원들은 소수만 제외하고 지역을 떠남. 철거 잠시 중지.
- 8.24 : 중앙대 해방광장에서 주민 60여명, 학생 300여명 참가하여 "사당동 공권력 투입 강제철거 분쇄 투쟁 결의대회" 개최.

3) 관련 자료

- 김록호,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일차보건 의료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서울 동작구 사당2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빈민 기혼여성의 생활과 일-사당2동 18통 지역을 대상으로」, 1986.
- 미상, 가난한 자의 교회를 위하여, 1986.
- 덕성여대, 「근맥 7호」-이 지구상 절반의 사람-, 1986.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 「도시빈민과 도시재개발」, 1987.
- 도시빈민사무위원회, 제2회 현장 분과 회의 기록, 1987.9.2.
- 미상, 철거민 형제들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1987.11.10.
-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재개발 사업이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 1987.11.

- 서울대학교 부설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도시 무허가 정착지의 성격과 생활실태-서울 사당동 재개발지역 사례연구-」, 1987.
- 사당2동 임채의 암사 사건, 1988.1.
- "우리 세대위는 밤에 이뤄졌어요", 월간 『말』(21호), 1988.3.
- 미상, 도시빈민운동과 함께, 1988.9.
- '사당동, 유혈속에 강제철거', 『자유언론』, 1988.12.
- 전 사당민주세입자대책위·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도시빈민분과, 사당 자치구 투쟁을 평가한다!, 1989.11.
- 사당2동 투쟁 평가, 『한국사회성격과 도시빈민운동』, 1989.
- 사당자치구 투쟁 평가, 1989.11.
- 김영석, 『한국 사회성격과 도시빈민운동』, 아침, 1989.
-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지역활동과 여성」.
- 기독교빈민선교협의회, 도시빈민 선교의 현황과 과제, 1990.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산불」(90년 동계 빈활자료집), 1990.
- 장세훈·홍경선, "국가의 도시 공간 재편성 정책과 그에 따른 주민과 국가의 갈등 분석", 한국사회사학회, 『현대한국의 노동문제와 도시정책』, 1990.12.
- 조혜란, 「도시재개발지역내 일상생활과 주민운동에서의 여성과 남성-서울시 사당2동 사례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도시빈민연구소, 「재개발과 철거투쟁」, 1991.1.
- 유인물 및 기타
- 사당동일대 본격 개발, 조선일보, 1986.1.
- 우리동네 86년, 중앙일보, 1986.2.17.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도시빈민분과위원회, 빈민투쟁 속보10, 1987.6.
- 사당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재개발반대 및 임대주택쟁취대회, 1988.1.31.
- 사당2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소식 1호-2호, 1988.1-3.
- 밤골동·사당동·동작동 세입자 일동, 현 재개발법의 개정 및 올바른 세입자대책을 위한 우리의 입장, 1988.7.
- 셋별 타아소, 셋별 아가방 소식, 1988.8.15.



- 중대신문, 기획르뽀: 사당2동 철거민촌을 찾아, 1988.10.10.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살인적 폭력철거를 규탄한다!, 1988.11.10.
- 사당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당동 철거지역에서의 유혈의 광란과 학살을 고발한다, 1988.11.
- 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 빈민 학생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자!, 1989.3.20.
- 집중취재 '사당 자치구'-철거투쟁 상징, 주민들 '결사항전', 전민련신문, 1989.5.25.
- 사당동민주세입자대책위원회-서충연 도시빈민분과, 사당동 재개발 지역에 전경 백골단 2,000여명이 살인적인 강제철거 공권력 투입이 웬말이냐!, 1989.5.31.
- 사당·동작 민주세입자대책위, 강제철거 또다시 어린목숨을 빼앗다!, 1989.6.23.
- 사당·동작 민주세입자대책위, 빈민 생존 짓밟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1989.6.28.
- 사당2동 세입자대책위원회-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사당2동 투쟁 보고서-사당동은 또 하나의 광주다!, 1988.11.21.

# 철거민 아픈삶 몸으로 느낀다

한겨레 1/26

## 서충연 대학생 2백명 사당동서 빈민활동

"따르릉 따르릉 전화왔어요 / 강제철거 나왔다는 전화왔어요 / 우리 동네 꼬마들 단결했어요 ..."

허물어진 블록담 아래 깨진 기왓장이 널려 있는 골목길을 타고 어린아이들의 합창소리가 들려온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의 장단에 맞춰 유치원생 또래의 아이들은 '신나는 듯' 노래를 불러댄다.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사당2동 철거지역. 서울 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빈민활

동(공활)으로 이어지던 형식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겨울방학-빈민방식이 보태어진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바로 가깝게 있는 도시빈민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활동도 병행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같은 방향을 택하게 됐다고 학생들은 밝힌다. 특히 서울의 여러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들의 '철거반대투쟁'이 거세지면서 학생들의 철거지역 도시빈민에 대한

활동·주민-학생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5박6일 정도로 예정된 빈활기간중 학생들은 덜 부쉬진 철거주택에서 스스로 준비해온 음식과 이불로 생활한다. 철거민의 고통을 겪은 빈활기간이나 좀더 몸으로 느껴보기 위해 서라는 것이다. 철거지역 주민들도 학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사당2동 철거지역의 8백여세대 주민들은 이미 1주일 전부터 학생들이 머물 빈집에 보일러시설과 전기가설공사를 해주며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 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 표

## 놀이·봉사·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주민도 환영 분위기 철거주택서 생활...지역과 학교 연대 계기

동(빈활)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유아반 놀이강습시간의 한 모습이다.

"학생들이 빈민과의 만남을 통해 빈민의 생생한 삶과 애환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과 학교 사이의 끈끈한 연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빈민팀으로 이날 이곳에 들어온 한 학생은 빈활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대학생들이 개인 아닌 집단 차원의 빈민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담에는 청년연방(총활) 가을에는 광장

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21일 사당2동 지역에 맨 먼저 빈활선발대를 보낸 서울대팀뿐만 아니라 한양대(가락동 지역) 서울시립대(석촌동) 서울여대(창신동) 이화여대(홍은동) 고려대(돈암동) 성신여대(돈암동) 성균관대(돈암동) 학생들도 23일을 전후해 일제히 활동에 들어갔다. 빈활에 참가한 학생은 각대학 합쳐 약 2백명 정도. 학생들은 이곳에서 미취학아동으로부터 중 고생에 이르는 놀이·교육활동을 비롯, 청·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문화

창분(54) 회장은 "그동안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됐다. 학생들을 고맙게 생각하며 세입자들이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적거리던 겨울비가 멈춘 골목길. 그 사이로 빈활 중학생반의 노래소리가 퍼진다.

"은갓 슬픔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 남성시장을 휘휘 돌아 집으로 올라오니 / 아름다운 우리 동네..."

<하성봉 기자>









89. 5. 15.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테러를 방조하고 있는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사당철거대중.



89. 5. 15. 1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의 사당지역 침탈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학도들.



89. 5. 15. 조직폭력배들의 지역침탈을 막아낸 사당대중, 학생들이 힘찬구호를 외치고 있다.



89. 5. 30. 1,000여명의 전경들이 동원된 가운데 사당지역 공가(空家) 철거가 자행되고 있다.







문

저는 서울시 용산구 사당2동 산 11번지 과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의 한 사람입니다. 용산구 관공서의 과장을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양도 신청하고 양해 받는데 어려움에 처한 산병의 양을 수급이나야 위자료가 저의 이러한 심정을 감안한다면 감수합니다.

1987년 12월 27일 이후 24명 전의 과동 단회의 (당시)나 주지에게에 관하여 사당2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관공서에 갔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회 안에 위자료 신청서 제출하여 유가족 부인에서 차용아들과 이혼의 불행한 유가족 산병이 부인에서 현실에서 암사 하였습니다.

무엇이 유가족 양도는 불행으로 산병의 진물의 뜻입니다. 이 진물은 1985년 2월에 주민들의 신청으로 구청에서 철거했던 진물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발생 직후 구청에 갔다가 철거당시에 왜 완전 철거를 못했느냐고 추궁하자 구청에서는 원인이 불확실 연료가 있어 철거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정들에 대한 대의를 했어야 할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 위정들이 있다는 의견 건물을 재개발 추진 위원회에서 1987년 9월 5일경에 같이 관공서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관공서 반대한 위정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과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가족 안에 있는 위정들을 양도에 이르기까지 관공서를 통해 이렇듯 산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자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에 책임을 주고 유가족에서는 구청에 책임을 주고 있다. 부인의 입장에서 양산하고 관공서 양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찰에서는 수사과정에 구청에는 책임을 전하 몰려 주고 있다. 양산이 지난 85년 2월에 철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동회 올라가 수사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는 못했고 갖으려는 것이 아닌 사람도 별다른 없지만 무엇이 좋은 것인지는 분명 합니다. 저희 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은 행정 관공서에서 양산의 상해야만 들을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원인은 구청 못한 현실에서 양도를 지출수 있어 지출수







# 사당동 철거지역에서의 무혈의 광란과 학살을 고발한다!!

지금 사당동은 또 하나의 광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자는 헤아릴 수도 없고 증상자만 50여명이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3명 이상입니다. 11월 5,6,7,8일 저들은 천여명의 불탄배, 양아치들을 고용해 온 동네를 광란의 유혈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 폭력배들은 쇠파이프에 쇠꼬챙이를 갖고, 각목에 칼을 갖아 들고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집집마다 되쳐 남자만 보이면 무조건 난타했습니다. 또 삼으로 머리를 내려찍고 햄머로 할머니의 어깨를 으개버렸습니다. 쇠파이프로 구타한 뒤 이층에서 던져 버리고 또 다시 깃발했습니다. 이제 75살된 황용삼군도 마구 쇠파이프로 구타당했고, 주민 다섯명이 깃발로 손을 뒤로 묶어서 구덩이에 처박고 수십명이 달려들어 깃발했습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살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떠나루에 칼을 달아 배와 목에 대고 아주머니를 견복대에 묶고 옷을 벗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아주머니는 옷을 모두 잡아들고 칼로 가슴과 음부를 도박내겠다고 현혹하는 야수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의 민주화한다는 시대에 이런 광란적 살인극이 자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은 이러한 학살극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니 폭력배에는 분명 사복 전경이 섞여 있습니다. 평소 구청농성등 많은 시위현장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 어떤 폭력배는 "누나, 또보네" 하기도 했고 한 아주머니가 "왜 또 왔어?" 하니까 고개를 돌리는 폭력배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폭력배는 무전기과 사진기를 휴대하고 전경차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저들 폭력배는 공공연히 "구청장이 아무런 시위현장은 개척대개 시계가 다와도 좋다고 했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이는 분명히 관과 공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살극입니다. 또 태우정권은 관사학제도 이 사건을 가혹주와 서민자의 충돌로 위장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사업의 모든 책임자는 현 정권이며 이러한 광란적 살인극을 조종하고 배후사주한 것도 현 정권입니다.

우리 사당동 주민 일등은 살인 폭력을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생들과 같이 연대하여 우리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복숨을 걸고 끝까지 사수의 기어로 이 엄청난 만행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살기좋은 세상,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수있는 사회를 장최할 것입니다.

### 우리의 주장

- 1. 사당동 살인 폭력 만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론 모두 처단하라
- 1. 동각 구청장, 관악시장을 즉각 구속하라
- 1. 살인 폭력배론 처벌하라
- 1. 장기용자 임대주택 보장하라
- 1. 철거주민과 보상자 보상문 지론 해결하라

## 2. 창신동

### 1) 지역 개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종로구 창신3동으로 원래는 가옥주 600여세대, 세입자 1,200여세대가 살았지만 1988년 6월12일 현재 27가구만이 남았다. 당시 이 지역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며 21평형(600세대) 12층 아파트, 55평형 아파트 등 1,500세대를 시공회사 쌍용건설이 건립할 예정이었다. 창신동은 이농민이나 철거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지역이다. 이곳의 세입자들은 장기저리 임대아파트 보장 혹은 88년 현재 살고 있는 공원부지에 정착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일지

- 1984 : 재개발 고시.
- 1986.9.7 :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 1987년
- 3.22 : 동대문 성당에서 주민 전체가 모여서 재개발 반대모임을 가짐. 세입자들은 별도로 모여 세대위를 구성함.
- 4.15 : 구청직원, 조합원, 기동타격대 200여명이 세대위 사무실을 강제철거함. 이에 항의하는 주민 14명 연행하고, 이중 8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3일간 구류.
- 5.3 : 놀이방 개소식 및 단합대회 후 동사무소까지 행진.
- 5.24 : 2개월 생계비와 아파트 방 1칸 입주권의 기만성 폭로와 현실적 대책요구 및 임원수배에 대한 항의 시위를 18개 지역과 연대하여 벌임. 1차에서 4차까지 총 80명이 연행되어 이중 2명 구속, 3명 불구속, 구류 19명.
- 8.29 : 전경 600, 철거반 300, 백골단 등이 최루탄을 쏘며 비오는 날에 강제철거.
- 10월경 : 인근 공원으로 이주.

- 1988년
- 3.2 : 조합과 구청의 지시를 받은 철거반원들이 공원의 천막을 철거. 이에 주민들 구청에서 농성



으로 강력대응. 이로부터 조합장, 주택계장, 종로서장 등의 공개사과와 원상복구 약속을 받아 냄.

.3.3 : 약속불이행을 따지며 재차 구청앞 농성.

.4.7 : 87년 8월29일 우중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쌍용건설 근처에서 농성. 피해보상비 1,200만원 받음.

### 3) 관련 자료

- 창신동 철거대책위원회, 탄원서, 1987-1988.
- 창신 1구역 재개발 조합장, 공고, 1987.5.19.
- 루한 안도니 예수회, 쌍용그룹 회장님께, 1987.5.19.
-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창신3동, 1987.5.
- 창신3동 1.2지구 세입자 일동, 진정서, 1987.6.
- 서태선·이외천, 진정서, 1987.9.18.
- 창신3동 세입자대책협의회, 창신3동 재개발 1-2지구 세입자 대책 협의회 기록, 1988.
- 창신3동 세입자대책협의회, 88년 제1차 정기 총회, 1988.1.12.
- 창신3동 재개발1.2지구 철거민 일동, 창신3동 1.2지구 철거민대책협의회, 1988.3.31.
- 창신3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창신3동 철거민대책위원회 '약관', 1988.6.16.
- 창신3동 재개발1-2지구 철거민 17인, 고소장, 1988.6.26.
- 창신3동 세입자대책협의회, 88년 총회와 모임 일지, 1988.

#### ■ 유인물 및 기타

- 창신3동 재개발1.2지구 세입자 일동,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 1987.5.25.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빈민생존 압살하고 민주화가 웬말이냐?, 1987.8.31.
  - 창신동 철거민 일동, 당국의 만행을 규탄한다, 1987.
  - 창신동 철거현장으로부터 세입자가..., 호소문, 1987.8.31.
  - 창신동 세입자 일동, 살인적 강제철거를 규탄한다, 1987.9.1.
  - 창신3동 철거민 일동, 우리의 보금자리를 즉각 원상 복구하라!, 1988.3.3.

- 창신3동 철거주민 일동, 이웃 형제 여러분 들께!, 1988.3.5.
- 창신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창신동 예비연립주택 준공식 및 도시빈민 결의 대회, 1988.3.20.
  - 창신동 철거민 일동, 초대장, 1988.3.
  - 창신동 철거민 일동, 성명서, 1988.3.20.
  -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창신동 예비주택 준공식과 결의대회를 맞이하여, 1988.3.20.
- 창신3동 재개발1-2지구 세입자 철거민 27세대 116명 일동, 경고문, 1988.6.3.
- 창신3동 철거민 일동, 도시빈민 대동 한마당, 1988.7.16.
- 힘없는 가난한 창신3동 철거민 일동,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1988.10.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창신동 분양권 비리 폭로 단식 농성을 지지한다, 1988.10.6.
- 창신동 세입자대책협의회, 전 애국시민에게 고발합니다, 1988.10.25.